

교회소식

1. 다음 주는 재직 주일입니다. 재직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데 충성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담임 목사 청빙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청년부로서 교회일에 관심 있는 학생
 - 지난번 청빙 목사 설교 영상과 인터뷰를 보신 분
 - 교회를 6개월 이상 출석하신 등록 교인
3. 수요 예배가 22일부터 저녁 7시30분 중고등부실에서 새롭게 찬양사역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다음주(19일)에는 예배 후 공동체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모여 새해 인사와 덕담과 간증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기도제목

- 1.복음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 2.새해에 결심한 신앙적인 결단을 잘 지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 3.육신의 연약함에 지친 성도에게 용기를, 고난 중에도 주만 바라보도록.
- 4.열방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한 한해가 되도록.

예배시간

- 주일예배 오후 1:00
(본당)
- 청년부 오후 1:00
(본당)
- 중고등부 오후 1:00
(본당)
- 유아동부 오후 1:00
(아동부실)
-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실)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김혜정
새신자안내 : 이기중
주차안내 : 민광호
주방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박혜정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calvary Church
은행계좌 : ASB BANK
12-3042-0352091-00



2025년 1월 12일 (통권 26권 2호)

교회 설립 1999년 7월 18일

해외한인 장로회
뉴질랜드 **갈보리교회**
Calvary Church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021 109 9757 // pbm@calvary.org.nz

www.calvary.org.nz // www.youtube.com/@calvaryorgnz

주일예배 순서

인도 : 박병민 장로

찬양	주일 찬양팀
예배로의 부름	시편 121:1-2,7
찬송*	36장 / 다함께
참회의 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함께
찬송	423장 / 다함께
대표기도	김창조 집사
성경봉독	신명기 32:3-4
찬양대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설교	내가 여호와와 이름을 전파하리라 - 이여호수아 목사
찬송	216장 /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신명기 32장 3절 / 다함께
응답송*	감사 위에 감사 / 다함께
축도*	이여호수아 목사

공동성경읽기

내가 여호와와 이름을 전파하리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신명기 32장 3절)

대표기도 순서

- 1월 5일 박병민 장로
- 1월 12일 김창조 집사
- 1월 19일 고석승 집사
- 1월 26일 장경희 집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순서

1월 1, 8, 15일 수요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려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요약

엡2:4-10 / '함께'는 축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말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돈도 뭐도 필요 없다.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마28:20,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21:3,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본문 5~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붙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단어들도 아주 절묘합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의 해결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유익 중 우선적인 것은 살리심, 즉 구원입니다. 인간이 받아들여가 거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되어 구원의 기쁨을 확신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2.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즉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삶에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3.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시니' 즉 우리가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6절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계신 그것에 '함께 앉히시니'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이름이 갈보리(Calvary)입니다.

갈보리 언덕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언덕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하려 대신 죽으신 그 언덕입니다.

갈보리 성도 여러분의 2025년은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여 힘차게 부흥의 날개를 펼쳐 나가십시오.